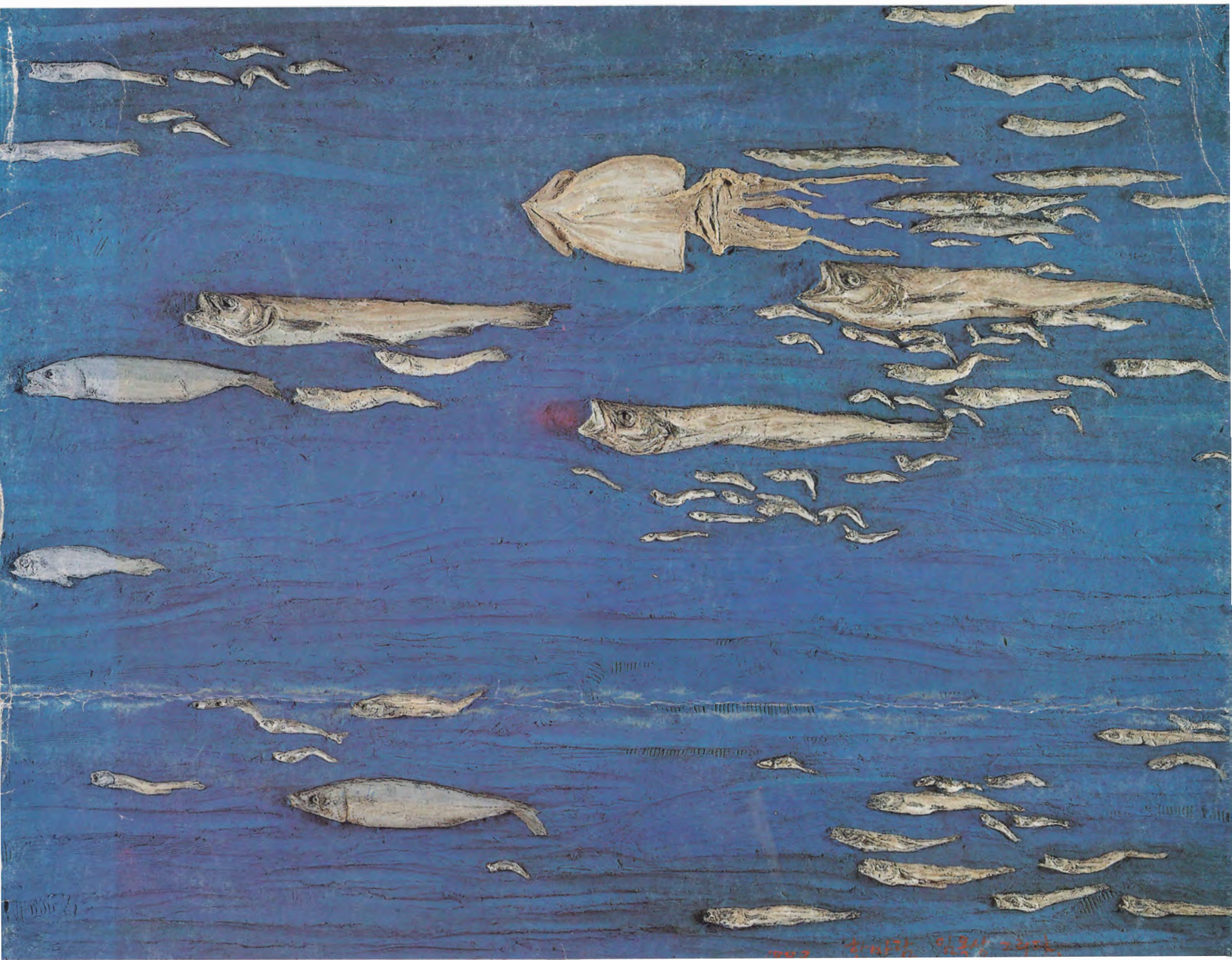




LIM, OK-SANG

임 옥 상 展

1997. 3. 26(수)~4. 4(금)

초대일시 : 1997. 3. 26(수) 오후 5시

가나畫廊

작가 임옥상과 우리 시대의 미학

작가 임옥상과 그의 작품세계는 우리 시대의 '화두' 와도 같다. 임옥상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 미술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위상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 시대의 비평적 실천이 지녀야 할 전망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되면 나로서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그것은 임옥상의 작품세계에 대한 비평적 인식의 최고치(리얼리즘)가 이 시대 비평의 최고치(리얼리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본문이 이런 비평적 시도들의 생산을 촉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임옥상의 세계(작가적, 작품적)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매개, 매체이다. 모순을 매개하는 현실 구성력의 총체성이다. 그러나 그의 현실구성력은 정치,경제적 모순의 계기들이 의식에 반영된 것으로서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역동성을 갖는 성질의 것으로서의 모순이 지닌 구성력이다.

그는 도로 위의 교통표지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모순적 역동성이 지향하는 곳 아무데로나 달려갔다가 스스로 내키는곳에서 멈추는 그런 '자동 다이내믹 머신(Auto-Dynamic Machine)' 과도 같다. 이런 자동 다이내믹 머신이 표상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예술' 이라는 개념밖에 없다. 그리고 표상되는 것과 표상하는 것 사이에 불명료한 오리무중의 관계가 놓여있다면, 이 관계의 진실에 우리 시대 예술의 진실이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임옥상의 세계는 그 자체가 '예술' 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리무중의 모순덩어리인 그의 세계는 바로 그 모순의 생산적 성질로 인하여 스스로 움직이면서 시대를 '예술' 로 만들고 있다. 원래 예술의 본질은 모순의 매개(내용과 형식의 일치라는 의미에서)에 있다. 자동 다이내믹 머신(형식)과 형체없는 거대한 혼돈의 시대(내용)가 만나면서 시대의 내용에 형식을 부여하고, 그러므로써 그의 세계는 그 내용이 지닌 모순을 극대화해 '재현' 하고 있다. 그는 신화가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신화' 를 부여하면서 시대를 '예술' 로 승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예술을 인식하고자 할 때 우선 던져지게 되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임옥상의 예술세계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귀족적인 의식과 대중적인(중산층적인) 의식, 민중적 의식 전부를 포괄하는 스펙트럼을 지닌다. 그는 이 각각의 문화적 수준 사이에 놓인 욕망과 의지, 지각체

험의 차이와 중오, 열등감과 자기은폐, 그 차이의 간극을 메꾸는 '제도문화'로서의 공공적 문화의 권위주의적 통속성에 대해 알고 있는 작가이다. 이런 것 전부가 펼쳐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각각의 문화적 의지가 지닌 정치적 함의의 그 섬세한 서로 모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충적으로 연대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나 있는 갈래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와 양상들에 대해서도 간파하는 작가이다

물론 그가 '알고 있다' 는 것은 이와같은 현실문화의 정치성을 그가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감성은 우리 시대 미학의 내용을 마치 '자기자신' 의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가 표상하는 바에 대해 예민하다. 그의 예술세계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얻고자 하는 예술적 성취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예술'로서의 기능 그 넘어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 은 그의 예술세계에는 족쇄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는 이 차이에서 오는 긴장을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모순 덩어리의 무규정적 생명력의 질주로 헤쳐왔다. 임옥상의 최근 작품들이 이 시대가 포괄하고 있는 귀족적, 대중적, 민중적인 문화의 내용과 형식을 매개하고 있는 구조가 이들 각각의 문화들을 엮어 나가고 있는 이 시대 현실문화의 바로 그 구조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정도는 임옥상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 시대가 내리는 평가의 전망과 한계가 되는 것이다.

2.

임옥상의 일곱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역사' 에 관한것이다. 전시에는 '징검다리' 라는 표제가 붙여진 것 같은데 역사의 징검다리이고자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임옥상 자신도 그와 시대적 예술관 사이에 놓인 차이와 동질성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그로하여금 스스로 절실히 징검다리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일 것이다.

임옥상의 이번 작품들이 보여주는 주제와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매체들과 회화성의



소나무 '97-II, 종이부조 석채, 180×180cm, 1997



소나무 '97-1, 종이부조 석채, 180×180cm, 1997

관계는 우리 시대의 귀족적, 대중적, 민중적 지향을 하나의 문화적 좌표로 재구성시키는 그의 입장을 드러낸다. '역사'라는 이번 전시 주제가 지닌 구체적 내용은 이 시대 역사인식의 첨단을 걷는 그런 내용의 것이다. 냉전체제 붕괴와 문민정부 성립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다. (여기서 이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 내용은 민중적 지향의 것인 동시에 동시대적 지구의 첨단적 역사관의 현재형을 수용하고 있고 '민중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함께 묶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의 이번 전시 주제는 이중적으로 '아방가르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내에서 언제나 엘리트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숙명이다. 그래서 또 역사는 언제나 '아방가르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방가르드'보다는 '역사' 자체가 기실 훨씬 더 민중에 밀착되어 있고 민중의 피와 땀의 계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옥상은 '매체'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는 '대중성'을 고려한다. 그의 매체를 끌어들이는 선택의 기준과 사용방법은 현대 대중산업사회가 매체를 대하는 태도에 준해있다. 즉, 대중들이 지닌 매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수준과 정도를 '대중미학'의 수용차원에서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차용할 뿐 만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대중은 매체가 지닌 자체 기능의 효율성만을 볼 뿐이지 매체가 지닌 사회적 관계의 정치적 의미나 매체의 물질성과 기술적 전문성의 심미학을 보지는 않는다.

그런가하면 임옥상의 회화세계가 지닌 예술미는 민중적이거나 대중적인 '통속성' 혹은 절충된 취미의 그런 치졸하거나 상식적인 예술성(오늘날의 우리 미술작품 대부분은 이런 수준을 넘지 못한다. 오늘날의 우리 순수미술은 사실 고급미술의 키치일 뿐이다)을 훨씬 능가하는 미적 특성을 지닌다. 그의 작품은 키치를 주제로 하고 있을 때조차 키치를 창조적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 시대의 예술관, 예술비평과 그와의 투쟁에서 그가 결국 역사적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면, 그의 힘 혹은 생산성, 오리지널리티는 바로 이 점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것이다. 이런 예술적 자질은 그의 회화세계가 지닌 미학을 귀족적인 성질의 것으로 만든다.

'귀족'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탁월함'과 그래서 '특별해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어한다. '귀족적인 것'에 대한 매혹은 인류 정신의 영원한 야망이다. 인간이 무언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행위 혹은 그 '의미'라는 것에 대해 지닌 인간적 지향의 아주 깊

은 뿌리까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 '가치'를 찾는 인간적 지향의 본질적 지향성은 '귀족적인 것'에 대한 추구임을 볼 수 있다.

'귀족적'이라는 개념이 무언가 탁월하고 특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인간이 '귀족적으로' 살 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실제의 인간사회에서는 언제나 극소수의 인간에게만 허용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예민한 인격의 소유자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의 상태, 그것은 인간 삶의 최고의 경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귀족적인 것이 추구하는 실제 삶의 내용은 지상지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이런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의 부정성을 만들 뿐이다.

임옥상의 그림들에 대한 '귀족적'이라는 평가는 그러므로 그의 그림들이 반민중적이거나 반대중적임을 뜻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의 그림들은 대중과 민중의 것일 수 있는 미적 이상을 담보하는 것일 수 있고, 이 시대의 대중들과 민중들도 그의 그림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볼 줄 알고 있는데, 작가자신만이 이런 자신의 예술성을 반진보적인 속성의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폐기되어야 할 '보수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에 그의 인식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예술가로서의 임옥상의 예술적 실천내용과 형식들은 그의 작품들을 위와같은 거시적 전망하에서 우선적으로 읽게끔한다. 이는 그의 실천이 늘 '역사'와 '인간'에 대한 거대 프로젝트의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조율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비평적 인식의 말머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 않게 비평 또한 '역사'의 구도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구조와 그의 움직임의 구조, 역사의 모순과 그가 만들어 내는 실천의 모순이 만나고 얽혀지고 일치되기도 하다가 갈등하는 양상이 현재 우리 예술의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역사와 만나고 하는 이 조우가 지금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몇 안되는 가장 '도전적'인 예술적 실험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시대와 한 개인이 만나고 있는 역사의 파노라마, '시대의 예술'을 보고 있는 것이다.



1



2

1. 보안·안보, 종이에 아크릴릭, 50×42cm, 1996
2. 보안·안보, 종이에 아크릴릭, 50×42cm, 1996
3. 시화호, 종이에 아크릴릭, 53×72cm, 1996
4. 문민시리즈 제1탄, 종이에 유채, 61×91cm, 1996
5. 청와대(문민시대), 캔버스에 아크릴릭, 45×61cm, 1996
6. 세계화, 캔버스에 아크릴릭, 35×42cm, 1993
7. 빨, 종이부조·석채, 59×91cm, 1996
8. 역사 앞에서, 종이에 아크릴릭, 24×52cm, 1996



3



4



5



6



7



8



물의 노래 '97, 캔버스에 유채, 90×72cm, 1996

임 옥 상 / Lim, Ok-Sang

- 1950 충남 부여 출생
- 197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4 동대학원 졸업
- 1986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 1979-81 광주교육대학 교수 역임
- 1981-92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역임
- 1993-94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 1972-82 십이월전 작품
- 1977-82 제3그룹전 작품
- 1980-90 현실과 발언전 작품
- 1983-84 문제작가 작품전(서울미술관)
- 1988 민중아트전(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
밀라노 트리엔날레(이태리 밀라노)
- 1989 함부르크 <포름>전
- 1991 반 아파르헤이트전(예술의전당)
- 1992 십이월전 그후 10년전
- 1992-93 실크로드 기행전(동아갤러리)
- 1993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트리엔날레
코리아 통일미술전(동경)
토탈미술대상전(토탈미술관)
대전 EXPO 재생조형전
- 1994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새야, 새야 파랑새야>전(예술의 전당)
민중미술 15년전(국립 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 40년의 얼굴전(호암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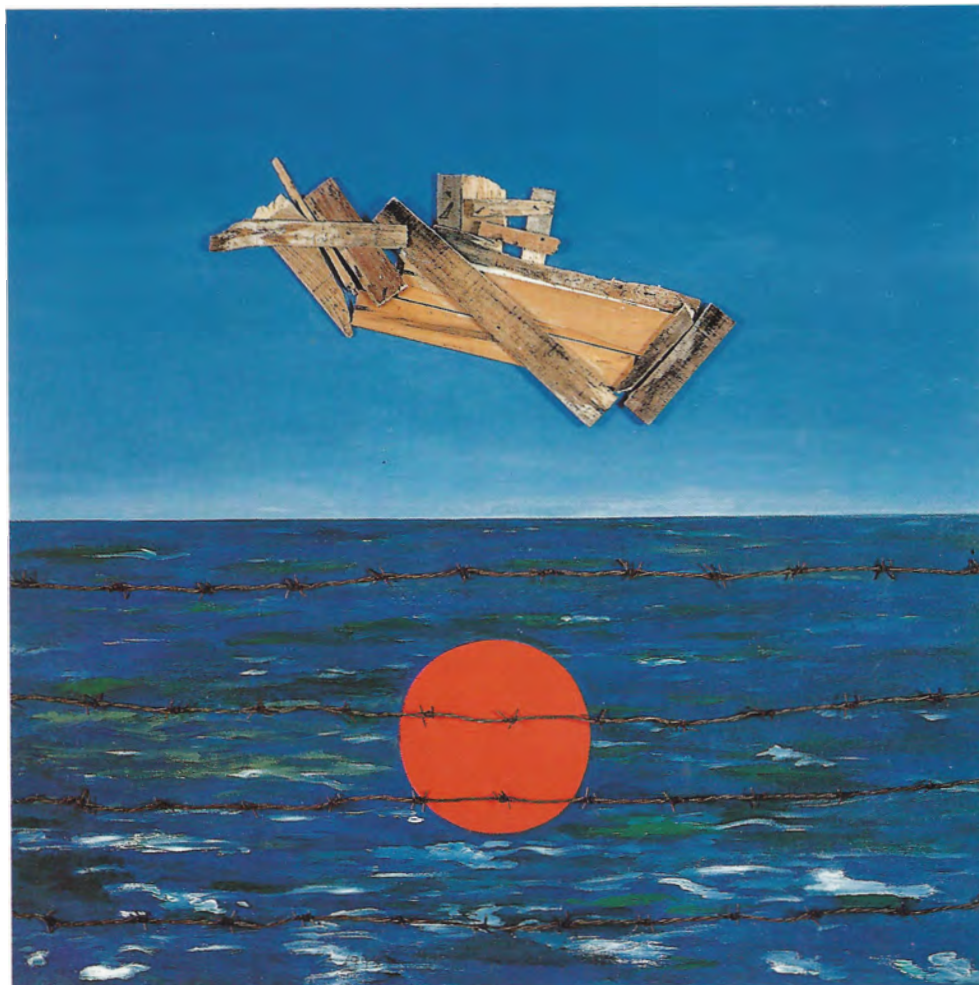
- 1994 서울 풍경의 변천전(예술의 전당)
한국미술의 빛과 색(호암갤러리)
- 1995 한국현대미술전(중국 북경)
'95 한국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호랑이 꼬리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베니스)
해방 50주년 기념 민족 미술전(예술의 전당)
정보와 현실전(영국 에딘버러 후르트마켓 전시장)
제1회 광주비엔날레(광주)
- 1996 서울판화미술제(예술의전당)
그림으로 본 현대 인물사(노화랑)
조국의 산하전(시립미술관)
- 개인전
- 1981 제1회 개인전(미술회관)
- 1984 제2회 개인전(서울미술관)
- 1988 제3회 개인전 '아프리카 현대사' 전(가나화랑)
- 1990 제4회 개인전 '우리 시대 풍경' 전(온다라미술관)
- 1991 제5회 개인전(호암갤러리)
- 1995 제6회 개인전 '일어서는 땅' 전(가나화랑, 가나 보부르-파리)
- 1997 제7회 개인전(가나화랑)
뉴욕 ALTERNATIVE MUSEUM 초대전

수 상

- 1985 학원 미술상 수상
- 1992 가나 미술상 수상
- 1993 토탈 미술상 수상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성곡미술관 등



일출, 캔버스에 아크릴릭, 131×131cm, 1997



우리시대의 풍경 '97, 캔버스에 아크릴릭, 189.5×101cm, 1997



우리시대의 풍경 '97, 캔버스에 아크릴릭, 189.5×101cm, 1997

ANA ART GALLERY

192-18, Kwanhoon-Dong, Chongno-Gu, Seoul, Korea Tel. (Dir) 733-4545 Fax. 733-6937